

빛과 축제로 물든다...광주 연말연시 ‘꿀잼 도시’

대형 트리·성탄마켓·야경 명소 등 겨울빛 축제 도심 곳곳서 펼쳐져
배구·빙상·눈썰매 등 액티비티... ‘호두까기인형’·‘라 보엠’ 공연도

한 해의 끝자락인 12월을 맞아 여향 광주가 형형 색색의 빛과 역동적인 겨울 스포츠, 그리고 감동을 선사할 풍성한 문화예술 공연으로 채워지며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변모한다.

광주시는 시민과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도심 어디에서나 겨울만의 특별한 낭만과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다채로운 연말연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와 수준 높은 예술 공연이 어우러져 ‘꿀잼 도시’ 광주의 매력을 한껏 발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먼저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는 것은 도심의 밤을 수놓을 화려한 빛의 향연이다.

광주 5·18민주광장에서는 30일 점등식을 시작으로 ‘빛고을성탄문화축제’가 성대하게 막을 올린다. 광장에는 웅장한 크기의 대형 크리스마스트리와 다양한 빛 조형물이 설치돼 겨울밤을 파스하게 밝히며, 기간 내내 캐럴 버스킹 등 시민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문화 행사가 이어진다.

중장로우체국 일대에서는 12월 31일까지 ‘충장 윈터판타지’가 펼쳐진다. 유럽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연상케 하는 부스와 감성적인 포토존이 마련돼 연말의 들뜬 분위기를 만끽하기에 제격이라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의 근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남구 양림동은 이국적인 정취가 물씬 풍기는 크리스마스 명소로 탈바꿈한다.

12월 1일 트리 점등식을 시작으로 크리스마스가 브인 24일과 당일인 25일에는 거리 퍼레이드와 성탄 콘서트가 열려 주민과 예술인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연출할 예정이다.

광주의 관문인 광주송정역 광장도 여행객들에게 설렘을 선사한다.

‘12월 가장 예쁜 역’이라는 주제로 꾸며진 ‘산타 마을’은 내년 1월 13일까지 운영되며 광주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잊지 못할 첫인상을 남길 전망이다. 이 밖에도 남구 푸른길공원 청로정 일원과 서구 운천저수지 바닥분수대 광장, 광주신세계백화점 등 도심 주요 지점마다 설치된 경관 조명들이 빛의 도시 광주의 겨울 야경을 완성한다.

겨울철 액티비티도 풍성하게 준비됐다. 우치공원 내 광주패밀리랜드 눈썰매장은 12월 중순 개장을 목표로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실내에서 빙상 스포츠를 즐기고 싶다면 서구 염주종합체육관 내 광주실내빙상장을 찾으면 된다. 이곳은 초보자들을 위한 안전 장비 대여는 물론 체계적인 강습 프로그램까지 갖추고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스케이팅을 즐길 수 있다.

겨울 실내 스포츠의 꽃인 프로배구 열기도 뜨겁다. 광주페퍼스타디움에서는 광주를 연고로 하는 여자프로배구단 AI페퍼스의 홈경기가 12월 12일, 17일, 30일에 각각 열려 배구 팬들에게 박진감 넘치는 승부를 선사한다.

또 북구 오차동에 위치한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은 학생들과 학부모가 함께 지진이나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을 가상으로 체험하며 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국립광주과학관 역시 크리스마스 시즌을 겨냥한 특별 전시와 과학 체험 행사를 마련해 미래 과학 꿈나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예정이다.

품격 있는 공연 예술은 시민들의 감성을 채워준다. 광주시립발레단은 연말 스테디셀러 공연인 ‘호두까기인형’을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무대에 올린다. 차이콥스키의 낭만적인 선율과 무용수들의 환상적인 군무가

어우러진 이 작품은 매년 매년 행렬을 기록할 만큼 사랑받는 공연이다.

이에 앞서 광주시립오페라단은 12월 5일과 6일, 푸치니의 걸작 오페라 ‘라 보엠’을 선보인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은 12월 12일 전남대 민주마루에서 ‘2025 송년음악회: 윈터 랩소디’를 개최해 웅장한 오케스트라 선율을 한 해의 노고를 위로한다. 광주예술의전당 기획 뮤지컬 ‘레드북’ (12월 12~14일)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의 음악극 ‘긴 긴밤’ (12월 5~6일), ‘2025 ACC 송년음악회’ (12월 19일) 등도 연말 공연계의 풍성함을 더한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보내고 희망찬 2026년을 맞이하는 행사도 마련된다. 12월 31일 자정 5·18민주광장에서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제야의 중’ 타중 행사가 열려 제야의 밤을 뜨겁게 달군다.

이어 새해 첫날인 1월 1일에는 남구 금당산 정상에서 해맞이 행사가 진행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박병규(왼쪽) 광산구청장이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수거를 직접 하고 있다. <광산구 제공>

광산구, 쓰레기 매일 수거...민원 절반 ‘뚝’

4097건서 올해 2244건

광주시 광산구가 민선 8기부터 생활폐기물 수거 방식을 ‘주 3회’에서 ‘매일’로 바꾼 뒤 민원이 눈에 띄게 줄었다.

종량제 봉투 미수거와 임의 수거 혼선이 해소되면서 재활용 수거체계까지 손질해 현장의 불편을 구조적으로 낮춘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30일 광주시 광산구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관련 민원은 2023년 4097건에서 2024년 2244건으로 감소했다. 전년 대비 45% 줄어든 수치다.

올해는 10월 기준 1948건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1년 1790건이던 민원이 2022년 3213건, 2023년 4000건을 넘기며 가팔랐던 증가 흐름이 민선 8기 정책 전환 이후 완전히 반전된 셈이다.

생활폐기물 수거를 매일 시행하도록 체계를 고치고, 수거 구역을 재조정에 동선과 시간을 표준화한 것의 결과라는 것이 광산구의 분석이다.

공청회 등에서 수렴한 주민 의견을 일정·노선에

반영한 것이다. 그 결과 민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던 종량제 봉투 미수거 민원은 2023년 1339건에서 2024년 473건으로 약 65% 급감했다. 올해도 10월 기준 476건으로 2년 연속 500건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재활용 수거체계 손질도 민원 감소에 힘을 보탰다. 광산구는 지난해 말 수립한 재정비 계획에 따라 7월부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운영하는 혼합 모델을 적용했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별 분리수거 과정에서 ‘수거 시점·품목’ 불일치로 민원이 쏟아졌지만, 민간 운영을 병행한 이후 관련 민원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사라졌다는 것이다.

광산구는 노후 청소차량을 순차 교체하고, 취약 시간대와 밀집 지역에 인력·장비를 재배치해 수거 공백을 줄였다. 야간·심야 시간대 적체 구간에는 탄력 투입을 확대했다. 수거 시각 예보, 주민 안내 고도화 등 커뮤니케이션 개선도 병행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책임보험 의무화

과태료 각 50만원·200만원

광주시가 개정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변경 신고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지난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충전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고 피해 보상 체계를 표준화하려는 조치로,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 과정에서의 화재 등으로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때를 대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가 되며 미가입 시 과태료 200만원

이 부과된다.

신고와 보험 의무는 전기차 충전사업자뿐 아니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건축법 시행령상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시설 등 13개 용도의 건축물에 충전시설을 두는 자 모두에 적용된다.

신고는 광주시청 민원실에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보험은 무과실보험 성격으로 운영된다. 보장 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5000만원, 대물 10억원으로 설정됐다. 가입 시점은 충전시설 사용 전이 원칙이며, 관리자가 바뀌었을 때와 기존 보험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가입해야 한다.

보험 상품은 12월 중 순차 출시된다. 제도 연착

륙을 위해 한 달간의 제도기간을 둔 뒤 과태료 부과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기존 충전시설 운영자는 2026년 5월 28일까지 신고와 보험 가입을 모두 마쳐야 한다.

시는 이번 의무화로 설치 단계의 안전성 확인과 사고 대응력, 피해 보상 확실성이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과 산업 현장 등 충전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공간에서 책임소재와 보상 구조를 사전에 명확히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충전 인프라 확산 속도만큼 안전 기준도 강화돼야 한다”며 “신고와 책임보험 제도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김장용 식재료 안전 검사 강화

이달 19일까지 서부·각화 농산물도매시장·마트 등 집중 점검

김장철을 맞아 광주시가 시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배추와 무 등 김장용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지난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원은 김장철 성수기인 12월 19일까지 서부·각화 농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해 관내 대형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지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정밀 검사를 진행한다.

집중 점검 대상은 김장 필수 재료인 배추·무·갓·파 등이다. 연구원은 이들 품목을 수거해 다이아지논을 포함한 총 345종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 초과 여부를 면밀히 살핀다.

검사 결과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식품위생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해 즉각적인 압류 조치와 함께 전량 폐기 처분된다.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관할 관청에 통보해 해당 농가 및 유통인에 대해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 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산하 서부·각화 농산물검사소는 지난 11월 현재까지 총 4060건의 유통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안전 기준을 위반한 85건

(2618kg)을 적발해 전량 폐기함으로써 부적합 먹거리가 식탁에 오르는 것을 막았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정현철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김장철을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주요 농산물에 대해 구간은 물론 야간까지 촘촘한 검사망을 가동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불안감 없이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로 김장을 담글 수 있도록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창고 매매·임대

대 지 920평
건 물 680평 (1·2층)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7-3
(도로변·육교옆)

문의 062.220.0513
010.3646.2701